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의 교육적 의미

Educational Meaning of Candlelight Vigil for President's Impeachment

김용기*, 임동희**

한서대학교 교양교육원*, 어퍼룸 크리스찬 스쿨(Upper Room Christian School)**

Yong-Ki Kim(nova365@naver.com)*, Dong-Hee Lim(jnvedu98@naver.co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촛불집회의 기원 및 역사를 구분하였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촛불집회를 4기로 구분하였고, '1기는 효순·미선이 추모집회', '2기는 미국 소고기수입 반대집회', '3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집회', '4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집회'로 구분하였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의미를 5가지로 밝혔다. 첫째, 교육구조의 변화이다. 둘째, 새로운 주체의 등장이다. 셋째, 민주적 소통과 표현의 장이다. 넷째, 평등과 연대성이다. 다섯째, 합리적인 성장의 계기 마련이다.

■ 중심어 : | 촛불 집회 | 탄핵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e educational meanings of candlelight rallies for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For this, the origin and history of Korean candlelight rallies were divided. The researcher divided Korean candlelight rallies into four stages such as rallies for cherishing Hyosun & Miseon for Stage1, rallies for opposing the import of US beef for Stage2, rallies for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for Stage3, and rallies for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for Stage4. After that, the researcher revealed five educational meanings of the candlelight rallies for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First, it is the change of educational structure. Second, it is the appearance of new subject. Third, it is the place for democratic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Fourth, it is the equality and solidarity. Fifth, it is the establishment of an opportunity to have rational growth.

■ keyword : | Candlelight Rally | Impeachment |

I. 서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재직 중 파면을 선고 받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

법재판소에서 파면을 선고받기까지의 과정 중에는 촛불집회의 영향력이 컸다. 대통령 탄핵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20석 이상을 가진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 상정 내지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탄핵은 국회의원 300명에서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부결이 확실한 상황이었다,

접수일자 : 2017년 04월 12일

수정일자 : 2017년 05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5월 29일

교신저자 : 김용기, e-mail : nova365@naver.com

또한 국회 제1야당인 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에 대한 기억이 있어 선불리 탄핵 상정을 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광화문에서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촛불집회는 국민 여론을 결집시켰다. 그리고 국회는 촛불집회 여론에 긴장하게 되었다. 여론에 떠밀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가결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이 직접 행동하여 반영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가결에 불복하였고, 불복은 헌법재판소에 재소하게 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심의과정을 거쳐 법률적으로 파면을 선고하였다.

외신은 국가 지도자가 부재중인데도 혼란 없이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는 대한민국에 놀라웠고, 수백만 시민이 광장에 모여 집회를 하었는데 사고 없이 마무리된 집회를 보면서 시민의식에 놀라워했다. 외국은 수백만이 이루어지는 집회는 반드시 폭동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집회 인원이 주변을 청소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이 외신에게는 낯설었다. 이에 세계 외신은 성숙된 시민의식에 대한민국을 보도하였다[1-3]. 이에 서울시는 촛불집회를 세계문화유산, 노벨평화상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4]. 촛불집회는 대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때, 국민은 언제든지 광장으로 뛰어나와 행동을 구현한 것이므로, 광장 민주주의라고도 불리었다. 로널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는 산업화 이후의 국민들의 정치정향 변동을 ‘탈 물질주의’로의 변화라고 칭하면서 ‘자기표현 가치’의 증대라는 가치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5]. 이러한 변화는 투표와 정당 가입과 같은 관료적이고 엘리트가 지도하는 참여형식(elite-directed participation)이 쇠퇴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동기화되고 엘리트에 도전적인 참여형식(elite-directed participation)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 있다. 탈 물질주의 적 가치로의 변동으로 기성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약화되고 참여형식 자체가 변했다는 것이다. 촛불집회는 민주주의를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한 국회가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치 못할 때, 국민은 언제든지 광장으로 나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간접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 나타나

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시위 집회로 자리 잡은 촛불 집회는 한국의 정치문제를 담고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언론자료, 인터넷자료를 분석하여 촛불집회의 기원 및 시기를 구분하였고, 이를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촛불집회의 전개과정과 그것이 담고 있는 교육적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집회의 자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가 자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6].

여러 사람이 한곳에 모여 그들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이야기하며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인간 공동생활에서 불가결한 생활양식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의사를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 효과적인 행동양식이라고 하겠다[5].

2. 집회의 이론적 배경

집회에 따른 정치 참여는 제도적 정치참여와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촛불집회와 유사한 비제도적 참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비제도적 정치참여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정치사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인권운동과 베트남전쟁의 반전운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가의 정책에 대한 항의 집회는 국가의 정책 내용에 대한 개선 및 비판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항의 행위는 첫째, 국가의 정책 집행에 대한 분노와 비판 행위이고 둘째,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단으로 표현하는 행위이고 셋째, 이런 사항에 대하여 주변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3. 촛불 집회 시초

지금까지 우리에게 집회문화는 불법, 과격집회 등이 떠올랐다. 이런 집회문화를 바꿔 놓은게 여중생 효순이·미선이의 추모 촛불집회이다. 이 촛불집회는 전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서울은 광화문광장에 10만 명이 모여 집회가 이루어졌다. 이 촛불집회의 시작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집회문화의 생성과정이었다.

원래 촛불집회의 시초는 슬로바키아이다. 슬로바키아는 1989년 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하여 촛불집회를 하였다. 이후 촛불집회는 비폭력 집회로 자리잡게 되었다[7].

우리나라 촛불집회는 1992년 무료로 운영되는 인터넷 서비스 '하이텔의 유료화'에 대한 반대집회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그 후 2002년 경기도 양주시의 지방도로에서 여중생 신효순·심미선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지게 된 사건을 계기로 정착된 집회 문화이다. 효순·미선이 사건은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와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열기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뉴스인 <오마이 뉴스> 기자가 추모하자는 뜻에서 촛불 집회를 제안하였고, 이 제안이 네티즌을 통하여 확산되어 2002년 11월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8]. 처음 촛불집회는 효순이·미선이의 추모성격이 강하였으나, 미군법정이 장갑차운전병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반미갈등을 띄게 되었고, 더 나아가 외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9].

4. 촛불집회의 역사

본 연구자는 촛불집회 역사를 총 4기로 구분하였다 (언론 검색을 통하여 대규모 인원 집회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등록금반값 촛불집회,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촛불집회, 백남기농민 촛불집회는 제외하였다). 제1기는 2002년에 시작된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효순이·미선이 추모집회이다. 제2기는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집회이다. 제3기는 2008년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반대 집회이다. 제4기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이다[10].

가. 제1기 촛불집회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지방도 잣길에서 미군의 훈련 중인 장갑차에 당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 신효순·심미선양이 깔려 참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단순 과실치사로 마무리되었고, 미군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2명의 여중생죽음에 대한 추모와 분노의 물결이 순식간에 전국을 휩쓸었다. 추모의 물결은 온라인을 통하여 확산되었고, 그러던 중 '앙마'라는 네티즌이 2명의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촛불행사를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앙마의 제안은 이리했다. "죽은이의 영혼은 반딧불이 된다고 합니다. 광화문을 우리의 영혼으로 채웁시다. 광화문에서 미선이 효순이와 함께 수천수만의 반딧불이 됩시다."라는 제안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확산이 되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타나 효순이와 미선을 추모하게 되었다. 이것이 촛불집회의 시작이다. 이것이 점차 확대되고, 여론이 형성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주한미군사령관의 공식사과와 미국 대통령의 간접적인 공식사과를 받게 되었다.

나. 제2기 촛불집회

2008년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집회였다. 2008년 집회는 1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촛불집회를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자기의 의사를 소신껏 발표하는 무대가 되었다. 이전 집회에서의 숭엄함, 비장함이 아니라 흥겹고, 유연하고, 폭소가 있고, 공감하는 박수가 터져 나오는 자리가 되었다. 제2기의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동력을 잃게 만들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정책추진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을 정면중단은 못하였지만, 촛불집회가 국민의 여론을 집결하여 상당한 정치적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 제3기 촛불집회

국회는 2004년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

했다는 게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찍으면 한 나라당 돕는 꼴”,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지지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등의 발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연합뉴스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78.2%, 반대의견이 21.5%로 나타났다[11]. 결국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국민은 한나라당에게 탄핵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되었다.

라. 제4기 촛불집회

2016년 10월 24일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이 최순실의 태블릿 컴퓨터 자료를 근거로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을 제기하였다. 태블릿컴퓨터에는 대통령 연설문과 최순실의 인사 추천, 청와대 정책자료 등 일반인이 생각하기 힘든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발표가 거짓으로 밝혀지자, 국민들은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촛불집회는 이제까지 꿈쩍하지 않았던 국회를 움직이게 하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하였다. 촛불집회는 점차 진화하고 성장하였다. 과거 집회에서 볼 수 없는 준법의식, 질서의식은 수백만 명의 집회가 모여서 경찰과 대치하여 집회를 하였는데 연행자가 한명도 없고, 쓰레기도 없는 집회질서를 확립하였다. 이런 집회의식 성장으로 법원은 집회 인원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파면 결정을 받았고, 구속기소되었다.

표 1. 촛불집회의 시기 구분

| 구분 | 1기 | 2기 | 3기 | 4기 |
|----|---------|----------|--------------|--------|
| 내용 | 효순 미선사건 | 대통령 탄핵반대 |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 대통령 탄핵 |

5. 연구 문제 및 방법

가. 연구 문제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의 배경과 전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촛불 집회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구성하였다.

나. 연구 방법

첫째, 이론적 문헌 고찰이다. 연구목적 및 문제가 설정되어, 이 내용을 토대로 이론적 문헌을 분석하였다.

둘째, 언론자료 분석이다. 방송과 신문을 통해 촛불집회의 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검색사이트(네이버, 구글)에 촛불집회를 검색하여, 촛불집회에 대한 언론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였다.

셋째, 인터넷자료 분석이다. 촛불집회가 온/오프라인의 쌍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졌음을 참고하여 촛불집회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분석한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비상행동 국민운동본부’에서 논의되고 소통하는 내용을 수집정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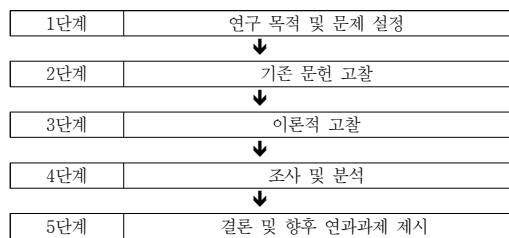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절차도

Ⅲ.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의 배경과 전개

촛불집회의 배경과 전개를 기술하기 위하여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주도한 ‘비상행동국민운동본부’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21차동안 진행된 촛불집회의 일정과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단계를 설정하였다.

1. 배경

JTBC의 최순실 태블릿 컴퓨터 보도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밝혀지자, 이후 대통령의 하야가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왔다. 그러나 야당은 거국중립내각구성을 주장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협상을 제안했고, 새누리당은 받아들였다.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하야는 언급하였으나, 탄핵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결과에 따른 조심성에 비롯된 것으로 역풍이 불지 모른다는 우려감이었다.

당시 국민들은 대통령이 빨리 하야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였는데, 야당은 자칫 탄핵을 추진하였다가 부결이 되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이후 퇴진을 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국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에서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긴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국회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가결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불복으로 헌법재판소에 재소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였다.

2. 전개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2016년 10월 29일 국민들이 도심으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제1차 촛불집회는 시작되었다. 이제까지의 촛불집회를 4단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론’을 외쳤고, 2단계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론’을 외쳤고, 3단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론’을 외쳤다. 4단계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수사’를 외쳤다. 2016년 10월 29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2017년 4월 15일 21차 집회까지 이어졌다.

가. 1단계 - 하야론 (1·2차 촛불집회)

(2016.10.26.-2016.11.11.)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갔다. 우리가 선출한 지도자는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이기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1·2차 담화가 언론(JTBC)을 통해 거짓해명으로 밝혀지자, 국민들은 대통령 하야론을 주장하였다. 30만이 모인 1·2차 촛불집회에서도 구호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로 분위기가 모아졌다.

나. 2단계 - 퇴진론 (3·4차 촛불집회)

(2016.11.12.-11.25)

2단계 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1단계의 박근혜 대통령의 영예로운 하야론을 주장하였다면, 2단계의 과정에서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였다. 2단계 촛불집회의 인원은 1단계 3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가족단위 참가자와 중·고생의 참여가 있기 시작하였으며,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으로 인해 수능이 끝난 고3이 촛불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 3단계 - 탄핵론 (5차-20차 촛불집회)

(2016.11.26.-2017.3.11.)

2016년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촛불집회의 주된 내용이 되었다. 대통령의 퇴진을 국회에 일임한 이상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 투표가 이루어지고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가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재소하였다. 이후 촛불집회 인원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고,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빠른 심판결과를 요구하였다. 이후 3월 10일 헌

법재판소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하여 확정 인용을 선고하였다.

라. 4단계 - 구속수사(21차촛불집회)

(2017.3.25.-)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이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대통령의 불체포, 불기소 권한이 사라졌다. 이러한 결과로 촛불집회는 자연인 박근혜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로 변화하였다. 뇌물죄, 국정농단과 인사문제비리,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 세월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하여 밝혀라라는 주장이었다. 그 결과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되었다. 이로써 대규모의 촛불집회는 마무리 되었다.

표 2. 촛불집회의 단계 구분

| 구분 | 촛불집회 | 집회 내용 |
|-----|-------|----------|
| 1단계 | 1·2차 | 대통령하야 |
| 2단계 | 3·4차 | 대통령퇴진 |
| 3단계 | 5~20차 | 대통령탄핵 |
| 4단계 | 21차 | 대통령 구속수사 |

IV. 촛불 집회의 교육적 의미

최순실 게이트로 5개월간 지속된 촛불집회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21차례의 촛불집회는 전체참여자만 1,500만 이상으로 대부분 특정 정파나 특정 세력과 결부된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우리나라의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한층 성숙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가 갖는 교육적 의미도 크다. 본 연구자는 검색사이트를 통한 ‘언론자료’와 촛불집회의 주최인 ‘비상행동국민운동본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촛불집회의 교육적 의미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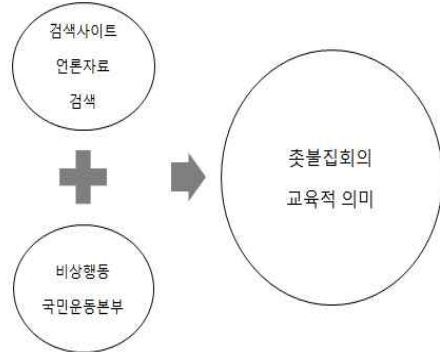


그림 2. 촛불집회 교육적의미 도출 과정

첫째, 교육구조의 변화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수직적·지시적이고, 순종적인 것에 익숙한 교육 구조 속에서 교육을 받아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적응을 잘하면 유능한 인간형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응을 못하는 무능한 인간형으로 분류되었다. 정부는 대통령이 담화를 하면 촛불집회도 진정될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국민은 수평적이고 참여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하였다. 대통령의 담화에 순종하지 않고 대통령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관철되기를 표출하였다. 이러한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정부는 지시적으로 일방통행이 이루어져서 촛불집회는 더욱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촛불집회는 새로운 주체 등장이다. 이제까지 학업과 취업에 갇혀서 정치와 사회현상에 무관심한 중·고·대학생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현상에 대하여 촛불로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고, 이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촛불집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촛불집회는 민주적 소통과 표현의 학습장이 되었다. 소통과 표현은 민주주의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런 요소에 대해 부족하였다. 그 이유로 정부에 대해 자유로운 표현을 탄압하는 블랙리스트 과문과 관제데모의 지원이다. 민주주의 발전을 다양하고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그러지 못하였다. 이에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을 촛불집회로 이루어졌고, 초 하나만 들면 자유롭게 소통하고 표

현하고 주장을 할 수 있었다. 이에 교육적 수혜자인 중·고·대학생들의 참여로 인해 많은 어록과 퍼포먼스를 남겨졌다.

넷째, 촛불집회의 평등과 연대성이다. 이제까지의 촛불집회 내용을 정리해보면 효순·미선이 추모, 소고기수입과등, 노무현대통령 탄핵 반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효순·미선은 추모와 더불어 미국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분노, 소고기수입과등은 일반국민의 대다수가 국민 건강권을 이유로 반대하는 데모,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데모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데모 모두 특권 의식에 대한 저항이고 비판이다. 즉 평등과 국민에 대한 연대의식이 포함된 집회이다. 교과서에서는 있지만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평등에 대한 단어와 공동체라는 연대성이 발휘된 집회이다.

다섯째, 촛불집회는 합리적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간섭, 지시, 지도 등 학교는 이제까지 학생들에게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순종적이고 순응적이기를 원했다. 그래서 순응하면 모범생, 순응하지 않으면 불량학생으로 낙인을 찍는 효과를 노렸다. 지시 내용이 어떠한 경우든 간에 말이다. 그러나 촛불집회는 본인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하여 활동한

사항이다. 사과의 주체가 학교와 특권층이 아닌 본인이 사고하여 활동한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한 단계 성숙하고 합리적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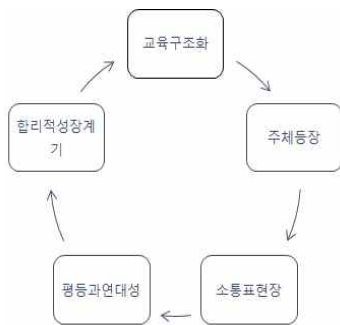


그림 3. 촛불집회의 교육적 의미

V. 결론

송경재(2016)는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집단이 오프라인의 정치집회 참여율이 높다고 하였다[12].

이는 이번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도 동일하게 작용하였다. 집회참가자는 비상행동운동본부의 사이트를 통하여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촛불집회는 진행되어 왔다.

김미선(2015)은 정치적 소통이 국정운영에 중요한 요소임을 말하였다[13]. 그러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국민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러한 방식중 하나가 촛불집회이다.

이번의 촛불집회는 과거 촛불집회에 비하여 비장함과 엄숙함이 아닌 소통과 교류의 문화 축제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참여 계층, 그리고 준법정신, 시민의식, 온·프라인을 넘나드는 소통과 활동은 우리사회에 교육적·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의 촛불집회를 총 4기로 나눠 보았고, 탄핵 촛불집회의 구호를 주제별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촛불집회는 민주·평등·소통 등의 개념적 특성이 또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인원들은 부조리에 대한 비판의식,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 민주적인 변화와 발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촛불집회는 기존의 사회과학 학문에서 민주문화의 주제로 활발히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촛불집회를 교육학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많지 않았다. 이에 교육학적 관점으로 촛불집회를 보려는 시각을 통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촛불집회를 통하여 또 다른 한 축으로 등장한 청소년과 젊은 층이다. 공부와 취업문제로 사회현상에 무관심한 이들이 한 축으로 등장하였다.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문제라는 것을 깨달고 비판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행동으로 보였다. 이제까지 우리는 국가에 순응하고 사회 특권층에 순응하는 것이 교육적이고 애국적이라고 믿어왔고, 교육받아왔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소수의 사람들만 지적하여 왔고,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육적 변화를

시도하였고, 이는 변화를 가져왔다. 촛불집회는 앞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수록될 것이다. 국민의 준법 정신과 질서 의식 그리고 변화의 계로 말이다. 앞으로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많은 교육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BBC 방송, 한국의 촛불집회, 2016.11.27.
- [2] CNN 뉴스 방송, 한국의 촛불집회, 2016.11.27.
- [3] 뉴욕타임즈, 한국의 촛불집회, 2016.11.27.
- [4] 매일경제, 촛불집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노벨상 후보 추진, 2017.3.19.
- [5] 정성호(역), *로날드 잉글하트의 조용한 혁명*, 종로서적, 1983.
- [6]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헌법21조 검색, 2017.
- [7] 나무위키, 촛불집회의 시초, 2017.
- [8] 문화저널 21, 촛불의 역사-촛불집회는 어떻게 진화해왔나?, 2016년 11월 25일자.
- [9] 문화저널 21, 촛불의 역사-촛불집회는 어떻게 진화해왔나?, 2016년 11월 25일자.
- [10] 박상철, *직접정치로서 초일상의 정치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11] 나무위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2017.
- [12] 송경재, “SNS는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정치정보 신뢰, 지지의 전환 및 참여 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pp.154-167, 2016.
- [13] 김미선, “정치적 소통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pp.179-190, 2015.

저 자 소 개

김 용 기(Yong-Ki Kim)

정회원



▪ 현재 : 한서대학교 교양교육원 연구 조교수

<관심분야> : 교육정책, 통일교육

임 동 희(Dong-Hee Lim)

준회원



▪ 현재 : 미국 어퍼룸 크리스찬 스쿨 (Upper Room Christian School) 재학생

<관심분야> : 경제교육, 교육정책